



김정열 | (주)두우컨설팅 대표이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IT 기업의 환경변화와 재무관리전략

최근 우리나라 IT기업이 당면한 수많은 과제 중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급변하고 있는 내·외부의 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의 확보인 것이다.

국내 IT업계의 조사기관이 발표한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IT기업은 약 2만개 정도로 전체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전반적인 우리의 IT 기업의 경쟁력 수준은 크게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IT기업의 약 98%가 중소기업으로 각기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정보(Market Information), 해외 마케팅 능력 결여 및 기타 적절한 재무관리 전략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적기 대응능력이 떨어짐으로 성장기업으로서의 기업가치(Corporate value)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만난 중견 IT기업의 대표 한 분은 우리 IT기업이 현재 처한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1980년대에 10년 동안 일어날 일이 최근 1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로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변화는 극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는 IT 기업만이 처해있는 현실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하는 우리의

경제, 경영의 변화와 부침(Up and Down)은 매우 심하기에 각 기업의 경영 미래예측 능력(Forecasting Ability)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 1970년대에 활동하던 30대 기업들 중 현재까지 존속하는 기업은 10개 기업 미만에 불과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이는 결국 기업의 미래예측과 적절한 대응능력의 부재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로 파악된다.

지난 봄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한때 세계 PC(Personal Computer)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회사였던 삼보컴퓨터가 PC시장의 새로운 흐름의 대응능력 결여와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부도상태를 맞이하게 되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휴대폰 업계의 최고 강자였던 텔슨전자와 세원텔레콤 역시 시장의 변화와 위기관리 능력(Risk Management) 부재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는 IT 기업의 변화와 도전(Change and Challenge)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막중하며 그 시련 극복여부가 기업의 가치(Corporate Value)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관련 주변 산업의 'Value Chain'이 급격히 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더군다나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중견 IT기업들이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재무관리전략(Financial Management Strategy)의 확보와 실행이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IT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과반수 이상이 이공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이 같은 재무위험관리(Financial Risk Management)의 인식 및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3가지 전략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위험관리(Financial Risk Management) 체계의 확보이다.

기업경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위험

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가장 높은 재무위험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당면하는 본질적인 'Risk Factor' 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상 위험(business risk)과 재무관리에서 파생되는 위험(financial risk)을 구분하여 재무관리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Risk' 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회사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의 관리다.

기업 경영에서는 일상적으로 항상 자금의 유입(Cash-in)과 유출(Cash-out)이 발생된다. 이런 정형적인 업무 과정에서 현금성자산의 유입보다 지출이 과다한 경우가 발생되면 종종 유동성부족(Shortage of Liquidity)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적절한 신용 공여(Credit Line) 제공처가 없는 경우 회사는 부도(default)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상사태를 위해 '주거래 금융기관' 은 물론 '부거래 금융기관' 과의 유대관계를 강화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외의 적절한 자금 Source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직접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회사의 새로운 성장엔진(Engine of Growth)으로서 M&A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기업경영의 추세는 기업의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을 성장 전략으로 중요하게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의 기업도 회사의 성장 원동력으로 M&A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IT기업들은 기술의 변화와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확보, 기타 시너지 효과의 확대를 위해 M&A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의 일환으로써 신규사업 영역의 확보를 위해 대규모 M&A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예: Oracle, e-Bay 의 M&A)

한편 우리의 수많은 IT기업들도 M&A를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및 성장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시점이 되었지만 아직은 폭 넓은 M&A거래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IT기업들의 CEO들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하여야하고 특히 재무 위험관리(Financial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최고의 위험관리자(Risk Manager)' 라는 인식하에 현재 우리의 IT기업들이 당면하는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日 도코모 '컨텐츠 확보戰' 참여

일본 최대 이동전화 사업자인 NTT 도코모가 '타워 레코드'에 자본 투자, 이를 자회사화했다. 이는 이동사의 컨텐츠 확보전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지난 8월, 1위 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이 YBM서울음반과 '400억원 음악펀드'를 설립한 바 있다. 니혼게이지가 신문 등 일본 외신이 11월 6일 전한 바에 따르면, NTT도코모는 일본 최대의 음악 소프트웨어 업체인 타워 레코드와 자본 업무 제휴에 합의했다.도코모는 타워 레코드 주 일부와 제 3사 할당증자를 인수, 발행 주식의 약 4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돼 실질적으로 타워 레코드를 자회사로 두게 됐다. 도코모 예상 출자액은 모두 100억엔(약 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도코모는 이번 타워 레코드 인수를 통해 '사이후케타이(펠리카 칩을 탑재한 결제 휴대폰)' 보급 확대 및 타워 레코드가 내년 봄 시작하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국내 SK텔레콤은 지난 5월, 국내 대표 음원업체인 YBM서울음반에 292억원을 투자, 자본 60%를 인수하는 동시에 400억원 규모 음악펀드 설립 추진도 병행키로 해 컨텐츠 확보전을 본격화했다. 이때 SK텔레콤 관계자는 "업계 선두 업체인 YBM서울음반 인수를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멜론에 보다 안정적으로 음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음악시장에서의 디지털 유통망 확보 및 신규 디지털 시장 창출에 시너지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